

## 사회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방안 탐색

지 은 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 I. 서론 : 코드 맞추기

최근 몇 년동안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확산에 성공했고, 그 프로그램의 공급과 수요의 양적·질적 팽창은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뉘져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험환경교육이 환경교육 분야를 주도하면서, 그리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이 두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민간환경단체가 학교수업이나 특별활동의 일부를 대신 진행하고, 기업체가 만든 환경교육 자료를 학교교육의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환경교사모임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두 영역간의 넘나들이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임을 주장하면서도, 나름의 영역을 구축한 환경교육의 주체들은, 이런 경계 허물기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음 역시 사실이다.

환경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보완적인 공동체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 환경교육의 주체는 다양하다. 개별적으로 보면 학습자, 교육자, 연구자(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구분이라면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와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체들은 어느 것이 우선이고 차선이라고 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들이다.

한승희(2001:106-7)는 학습을 생태학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개체의 성장과 조직 공동체의 발전관계를 학습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매개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태학적 관점이 주는 교훈은 바로 개체 성장과 군집의 성장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의 개별학습과정도 정보와 지식의 흡수 및 폐기를 반복하며 그 경험의 재구조화를 끊임없이 수행해 간다. 그러한 경험의 재구조화는 조직공동체의 경험을 재구조화하는 보다 큰 순환체계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둘러싼 조직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환경교육은 학습자, 환경교육교수자, 정책결정자, 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주체들이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이고 평등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의미를 창출해 갈 때, 환경교육 공동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은 환경교육의 주체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해서 하나의 환경교육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법으로, 각 주체들이 그들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 연결고리를 중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찾아 그것이 전문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여 그 접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 II.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탐색

### 1. 프로그램의 개념

교육적 행위는 의도성과 방향성을 전제한다. 의도성이 전제된 교육적 행위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과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서 일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즉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일정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적 실체이다(김진화, 2001:32).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커리큘럼과 자주 혼동한다는 점이다.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화된 학습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차이를 설명하면, 커리큘럼 개발은 프로그램 기획의 하위 과정중의 하나로 학습경험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범적이고 고정화된 성격을 강하게 띠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반면에 프로그램은 커리큘럼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예산, 홍보, 평가 등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아울러 유동적이며 융통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상황적이며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홍기형 외, 2001:187).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는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보다 넓고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Verner는 프로그램이란 특별한 교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된 학습경험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1회성 강좌에서부터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교육활동까지 적용되는 유연성 있는 용어(Brookfield, 1986)라고 정의한다. Schroeder(1970)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모든 교육적 활동, 조직이나 기관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능력, 특수 인구집단을 위해 설계된 교육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란 어원상 다차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Schwertz(1972)는 언어철학적인 입장에서 다섯 가지의 형태(mode)로 프로그램의 용어를 분석한 바 있다. 즉 ①체계(system)의 의미 ②계획과정에서 동사(verb)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planning)의 의미 ③기획을 통해 완성된 결과로써의 계획(plan)의 의미 ④문서(document)의 의미 ⑤수행(performance)이나 활동(activity)의 의미 등이 그것이다(Long, 1987:185; 김진

화, 2001:65).

이것을 사회환경교육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원으로 볼 때 프로그램이란 ①하나 이상의 사건(events)이 조합되고, ②각각의 사건들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며, ③전체 활동과정에서 하나 하나의 활동이 서로 관련된, ④위계를 갖고 순서화된 활동내용과 절차들이며, ⑤활동(activity)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형식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단위와 범위도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교육내용, 교육활동, 교육방법 등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 2.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성격은 실천 지향적이며, 경영 관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개발과정이 협동적 성격과 체제적 성격 등이 부각되는 다원적인 특성(pluralistic characteristics)을 나타낸다(Boone, 1985). 또한 프로그램 개발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개발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Combs(1980)의 연구를 수용한 김진화(2001)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개발의 특성을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개발과 비교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2-1>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의 차이 비교

구분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기본 단위	교육부 및 교육평가원	사회교육기관 및 조직체
프로그램 개발 수준	국가수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수준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학생 행동 및 능력 향상	직무향상 실생활 문제점 해결
프로그램 개발의 근원	학문구조	학습자 및 기관의 요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제	행정 및 관리체제	자발적·독자적 운영
교사 및 강사의 역할	교육내용 전달자	결정자 및 촉진자
프로그램 개발 양상	장기적임	단기적이며 역동적임

출처 : 김진화 (2001), p.86에서 재인용

또한 최석진 등(1997)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환경홍보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사회환경교육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첫째, 교육의 주체와 교육대상 면에서 학교환경교육은 교육 주체가 자격이 있는 교사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인물이나 기관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등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면 이러한 교육이 그대로 사회환경교육으로 지칭되고 있다.

둘째, 교육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학교환경교육은 그 대상 자격이 연령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되나, 사회환경교육의 대상은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되며, 설령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떠나서, 사회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으면 사회환경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사회환경교육에서의 교육대상은 연령이나 기타 자격 등에 의한 문제가 없다.

셋째, 교육 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의 측면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교실이나 실험실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회환경교육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강의실이든 강의실 밖의 자연 속에서든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진행시킬 수 있다.

넷째, 교재 측면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표준화되어 있으나 사회환경교육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공적인 교육재정으로 운영이 되나, 사회환경교육은 사적인 재원으로 프로그램과 기관 등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기업체 등에서 후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어렵고 학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최근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사이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그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사가 민간환경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민간환경단체가 학교수업이나 특별활동의 일부를 대신하고, 기업체가 만든 환경교육 자료를 학교에서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환경교사모임에서 학생을 넘어 다양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영, 2001).

### Ⅲ.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탐색

####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 가. 옥상녹화공간을 이용한 환경교육

옥상녹화는 도시의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식물생육 및 동물 서식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경적 요소가 강조되었으나 최근의 추세는 도시화에 따른 녹지감소분의 보충, 인공화된 구조물에 대한 조경요소의 강화와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환경 제공이라는 보다 다양화된 개념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옥상녹화 공간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하늘동산 21」이었다. 경동에 너지가 건물 옥상에 조성한 이 소생태계는 건물의 옥상을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하고, 도시내의 그린네트워크의 징검다리형 biotop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옥상정원은 인근 학교 및 사회단체의 중요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되었으며, 기업이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교육사례로 끝날 거론되던 이 곳은 현재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교육의 공공성(공익성)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환경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환경교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이런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명동 한가운데 위치한 유네스코회관 12층 건물 옥상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 그런 예다. 올해 외부에 개장한 이 생태공원은 작은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곳곳에 토종식물과 관목·교목 등이 식재되어 있고, 지난 봄 연못에는 물고기와 올챙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연못은 물탱크에 저장한 빗물을 흘려보내 일정한 수위를 조절하며,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낮은 습지에 모인 물은 태양전지의 동력을 이용, 흙밀을 거슬러 올라가 흐름을 시작하는 순환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청 별관의 옥상에도 녹화공간이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녹지보전 및 녹화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건물 소유주가 옥

상녹화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상녹화를 장려했다. 올해 11월에는 16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옥상에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2004)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9000여평)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할 때 법정 조경면적 외에 건물용도나 형태 등으로 산정한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환경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과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하겠지만, 「하늘동산 21」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환경교육의 주체인 정부(지자체, 공공기관)나 기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나.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교육

현재 여러 지자체가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로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해 환경교육 활성화(대중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시민환경교실' 사례를 통해 협오시설로 불리는 환경기초시설이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운영되는 '시민환경교실'은 2000년부터<sup>2)</sup> 시행된 서울시의 환경교육 및 홍보정책의 하나이다. 서울시의 시의회에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환경교실」의 운영 목적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환경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실천의식을 생활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있다.

교육은 교육접수 공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준비) → 희망단체/기관 신청 → 교육대상 단체/기관 확정 → 교육일정 확정(견학시설과 조율) 및 인솔강사 등 배치 → 교육신청 단체/기관 희망일시, 장소에 임차버스 인솔강사 등 투입 → 현장 교육실

2) 서울시가 「시민환경교실」을 처음 운영한 해는 1997년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환경의 실상을 알리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부여하며,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1999년에는 15회에 걸쳐 3천여 명이 참여했고, 2000년부터는 분리 운영해오던 「시민환경교실」과 「일일청소교실」을 통합, 현장체험 및 시설견학 위주의 「시민환경교실」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많게는 200여명이 넘는 교육인원이 통합된 해부터는 1회 90명으로 조정되었고, 2001년부터는 다시 45명 내외로 재조정되어, 교육의 내실을 꾀하였다.

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인솔강사는 버스 이동시 견학지 사전교육과 견학지에서 현장교육 등을, 자원봉사자는 교육시간 동안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현장 교육시설의 강사는 시설별 특성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 담당자는 이런 일련의 교육을 총괄 운영한다.

교육인원은 2002년 4,154명(99회), 2003년 6,332명(165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04년은 8,000명(200회)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 이들 학습자의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생이 4,155명(109회), 중학생이 1,743명(44회), 시민이 434명(12회)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03년도 시민환경교실의 운영예산으로 1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도의 증액된 예산(안)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이다.

또한 교육 후의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에서 80%의 응답자가 시민환경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환경교육을 안받아봤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아직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으며, 그 기회는 어릴수록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에는 시민환경교실이 제공하는 자원회수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을 이미 견학한 적이 있는 환경교육 유경험자들도 있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들이 환경교육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교육의 질을 떠나 양적으로 확대되어 보아 많은 학생·시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수요의 증가만으로 이 프로그램이 성공유무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교육공간인 환경기초시설별로 전문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인솔강사들의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잣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생태공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학습의 측면에서 생태공원은 자연관찰 및 학습을 위해 공원녹지를 생태적으로 복원·보전하며, 이용자들에게 식물·동물·곤충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 즉 소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접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최근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생태공원은 도시 속에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도입하되, 생태계 질서(종다양성, 생태적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길동생태공원, 여의도갯강생태공원, 강서습



지생태공원 등이다. 이런 공원들은 건강한 야생경관을 도입하고, 최소에너지 투입에 의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었고, 생태환경적으로 타 공원에 비해 비교우위성에 존재가치를 두고 만들어졌다.

이렇듯이 생태공원의 조성은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태생적으로 생태복원 연구가 주된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생태복원 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환경교육이 접목되었고, 현재 그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전예약제나 1회 및 1일 입장인원의 제한, 정기적 휴장 등은 국립공원이나 수목원이 과도한 방문객으로 인한 치명적인 생태적 피해의 교훈을 환경교육의 운영 틀로 정착시킨 좋은 사례이다. 또한 환경교육의 장을 갖지 못한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주체들에게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교육을 위한 공공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의 환경교육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에의 차단은<sup>3)</sup> 생태공원이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거점으로서 기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생태공원의 환경교육에 대한 성과는 다른 환경교육 주체들과 함께 공유할 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라.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회환경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그 활동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장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것들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를 이동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짧은 시간 교육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생태탐사행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지역의 특정한 장소(하천, 작은산, 생태공원, 궁궐 등)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단체가 생태학습장이나 환경교육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 장소를 공개함으로써, 환경단체나 학교 등과 공존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

3) 연구자가 A 생태공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생태공원의 관계자는 전자메일에 대한 요청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시 전화로 요청했을 때는 인터넷에 공개된 것 이외의 자료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공식적인 문서로 자료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이용범위까지 밝혔음에도 행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생태공원의 프로그램에 운영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될 뿐,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환경교육 주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발전을 모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숲속 자연학교, 환경운동연합의 궁궐의 우리나라,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본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작은 환경단체들이 그들 지역의 생태적 자원을 이용해 여러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마.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정책

##### 1) 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

환경교육·홍보단은 환경부가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 및 생활습관에 기인하므로 그 생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시행된 사업이다.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지나친 피해의식과 함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환경교육 강사진을 운영, 정확하고 실천적인 환경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환경사랑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환경교육·홍보단을 총괄하는 것은 환경부지만, 강사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환경교육·홍보단에 대한 기획, 조정, 운영지침 수립 시달, 소요예산 확보지원 등 사업총괄하며, 지방환경관리청은 교육수요발굴, 강사추천, 교육효과 측정, 홍보활동, 강사수당 지급, 교육실적 보고 등 실질적으로 환경교육·홍보단을 운영한다. 강사진은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 환경단체 관계자, 환경전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의 인원은 320명(2002년 7월 현재)이며, 임기는 2년이다.

환경교육·홍보단의 주된 활동내용은 초·중등학교의 특별활동시간에 1일 환경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자연생태교육, 환경놀이, 오염현장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야외환경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군부대, 신병훈련소 등의 군장병 교육과 예비군, 민방위교육 시 환경교육을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주관의 각종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도 이들의 활동내용이다.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곳은 학교지만, 이외에 청소년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도 강사료에 대한 부담없이<sup>4)</sup> 질 높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환경교육의 주체인 정부(공공기관)가 다른 환경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전문 환경교육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2) 환경교육이동차량

환경교육 이동차량은 환경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으로 올해(2003) 시작한 사업이다. 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 주부, 군인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눈높이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해는 확보된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교육이동차량을 제작하고 우선 수도권 지역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동차량을 이용한 환경교육은 환경 실험·실습, 환경보전 영상물 시청, 환경홍보 판넬 관람 등 체험교육 위주로 구성되며, 각종 환경관련 자료·홍보물도 나누어주게 된다. 환경교육 이동차량에는 방문교육의 특성과 실내공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8톤 트럭’에 컨테이너를 탑재하고 그 안에 빔 프로젝트·VCR·전동 스크린·PC 검색대, 탁·의자 등의 교육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교육 이동차량은 올해 말까지 구입·개조와 강사채용 등의 교육준비를 완료한 후 내년(2004)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신학기인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이동차량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지역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보전협회가 위탁을 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이전인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없지만, 향후 환경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사회환경교육의 특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점진

### 가. 사회환경교육의 특성

언급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유무를 파악할 수

- 
- 4) 환경교육·홍보단의 강사가 교육의뢰를 요청한 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강사료가 지급된다.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이 나름의 일정한 틀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교육은 ① 장소 중심 교육 ② 생태적 지식 중심 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이 현재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 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접점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들 간의 접점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장소, 즉 거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접점들이 어떤 곳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또 어떤 곳은 중요함에도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시적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넓은 대지와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어,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일부 시설물은 시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운동시설물을 개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설은 환경교육을 위한 또 다른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공원은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로 다양한 학습자에게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상당부분 또한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시 내 또는 근교의 생태공원은 자연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에게 강력한 파워를 행사한다.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공의 환경기초시설까지 환경교육을 위한 공공자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이 환경교육의 여러 주체들을 엮어주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그 거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이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 환경교육의 발전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을 지원하는 추진체제의 지원이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분과별 전문가의 라운드테이블이 그들에 의해 발의되고 추진체제에 지원될 때, 환경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 IV.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제언

이 글은 환경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의 주체들과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각 주체들이 그들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 연결고리를 중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찾아 그것이 전문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여 그 접점을 찾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글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다. 만일 다른 연구자가 다른 방식으로 사례를 선택해서 분석을 한다면 사회환경교육의 특성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교육분야에서 체험환경교육이 주도하는 동안은 장소중심, 생태적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는 편향적 특성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연구자는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로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자(강사, 교사, 간사, 관리자 등)의 역할과 과업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즉, 프로그램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내용만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틀을 찾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식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문성 유무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전문성 유무와 관계되며, 프로그램 개발자의 전문성은 그들의 역할 및 과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선부르게 판단해서도 안되는 것임을 인식했다. 사례를 조사하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은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으나 모든 사례를 개발과정을 수집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 글은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에 관하여 논하기에는 불완전하며, 현재 논의중인 환경교육사 제도를 포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강사, 교사, 간사, 공무원 등)의 역할과 과업,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참고문헌> (생략)